평창에서 할아버지 흔적 찾은 '스키여제' 린지 본

린지 본 할아버지, 한국전쟁 당시 정선서 참전
한살때 입양 프리스타일 이미현 친부모 찾는중

올림픽이란 무대는 메달을 따낸 영광의 얼굴들에게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쏠리기 마련이다. 그간의 성장과정은 물론 좌절과 도전을 반복한 스토리는 크나큰 감동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상대에 오른 주인공들만큼이나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각별한 이들이 있다. 바로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는 후손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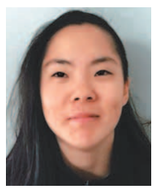
●한 살 때 헤어진 친부모 찾는 이미현

프리스타일스키 국가대표인 이미현(24)은 이번 대회가 누구보다 각별하다. 단지 생애 첫 올림픽이라는 점에서가 아니다. 한 살 때 헤어진 친부모님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1994년 10월 25일 경남 진주에서 태어난 이미현은 이듬해 미국으로 입양됐다. 겨우 한 살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셈이다. 그렇게 양부모님 품에 안긴 이미현은 3살부터 스키라는 스포츠에 빠져들었고, 국제무대로 나갈 수 있는 선수로 성장했다.

그러나 성인으로 자란 뒤에도 친부모님을 향한 그리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미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노력을 기울였다. 20살이 넘은 뒤로는 한국 스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아르바이트생 가운데 출중한 실력을 지닌 선수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됐고, 대한스키협회가 나서 이미현이 평창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한국 국적 회복을 도왔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렇다할 희소식이 아직까지



이미현

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17일 휘닉스 스노경기장에서 슬로프스타일 경기를 마친 이미현은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 번 친부모님을 찾아 나섰지만 끝내 연이 닿지 않은 상태다. 대한스키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에서 친부모님을 찾지 못하더라도 향후 언론 인터뷰와 TV 프로그램 출연 등을 통해 이미현이 마지막까지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할아버지 파병지에서 흔적 찾는 린지 본

'스키 여제' 린지 본(34·미국)도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한국이 특별하기만 하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 당시 할아버지(도널드 킬도)가 참전한 곳이 바로 알파인스키 경기가 펼쳐지는 강원도 정선군이었기 때문이다. 본의 사연은 개막 직전 기자회견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됐다. 본은 "할아버지를 위해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다. 어디선가 할아버지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리라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다"며 울먹였다. 어린 시절 본에게 스키를 가르쳐준 스승님이었던 할아버지는 그러나 손녀의 마지막 올림픽 무대를 앞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본은 17일 정선알파인경기장에서 열린 알파인스키 여자 슈퍼대회전 경기를 통해 8년만의 올림픽 복귀전을 마쳤다. 최종 성적은 공동 6위(1분21초49). 여제답지 않은 성적이었지만, 본은 "할아버지가 참전하셨던 곳에서 올림픽을 치렀다는 점만으로도 자랑스럽다"며 뿌듯해했다.

평창 |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스키 여제' 린지 본(오른쪽)은 할아버지가 참전했던 한국전쟁이 열린 땅에서 뜻 깊은 올림픽 경기를 펼치고 있다. 18일 강원도 정선에서 훈련을 마친 뒤 사인을 해주고 있는 린지 본. 정선 | AP뉴시스

레데츠카, 스노보드·알파인스키 동시 金 도전

〈체코〉

알파인스키 여자 슈퍼대회전 깜짝 우승
주종목 스노보드 우승땐 사상 첫 동시 金

동계올림픽 사상 최초로 스노보드와 알파인 스키에 동시 출전한 에스터 레데츠카(23·체코)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최대 이변을 일으켰다.

레데츠카는 17일 정선 알파인센터에서 열린 대회 알파인 스키 여자 슈퍼대회전에서 우승했다. 우승 기록은 1분21초11로, 디펜딩 챔피언 안나 파이트(오스트리아·1분21초12)에 단 0.01초 앞섰다. 그만큼 박빙의 승부였다. 8년 만에 올림픽 무대에 돌아온 '스키 여제' 린지 본(미국)은 6위에 머물렀다.

레데츠카의 우승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영국방송 BBC는 레데츠카의 우승을 두고 '큰 충격(BIG SHOCK)'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BBC 해설자 매트 칠턴은 "올림픽 역사상 가장 큰 이변"이라고 표현했다.

레데츠카 스스로도 놀라긴 마찬가지였다. 우승이 확정된 순간에도 한동안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레이스에서 속도를 높였고, 그 속도가 두렵지 않았다. 내려오는데 모든 걸 집중했다. 순위를 봤을 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혹시 다른 사람의 기록이 아닌가 착각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예상 밖의 우승뿐 아니라 빌려 탄 장비로 정상에 올라 더욱 화제가 됐다. BBC 보도에 따르면, 레데츠카의 스키 장비는 알파인스키 여자 대회전

레데츠카

에서 우승한 미카엘라 쉬프린(미국)에게 빌렸다.

원래 그의 주 종목은 스노보드다. 19세 때 출전한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 스노보드 평행회전 6위, 평행대회전 7위를 마크했다. 2015년과 2017년 국제스키연맹(FIS)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우승했고, 2017~2018시즌 월드컵 세계랭킹 1위를 마크하며 최정상급 선수로 발돋움했다. 반면 알파인 스키는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지만 주목을 받지 못했다. 올림픽을 앞두고 두 종목을 준비한 과정이 독특했다. 3주간 스노보드 훈련을 한 뒤 알파인스키 훈련을 3주간 했다. 두 종목을 번갈아 훈련하면서 집중력을 키웠다.

그는 운동선수 집안의 핏줄을 타고 났다. 할아버지는 올림픽에서 2개의 메달을 목에 건 아이스하키선수였고(1964년 인스부르크, 1968년 그르노블), 어머니는 피겨선수 출신이다. 아버지는 체코의 국민가수로 불린다. 남부럽지 않은 재능과 끼를 물려받은 것이다.

그의 도전은 현재진행형이다. 주 종목인 스노보드에서 금메달을 딸 경우 당분간 깨지기 힘든 두 종목 동시 석권이라는 대기록을 세운다. 스노보드 여자 평행대회전은 22일 예선을 갖고, 24일 토너먼트로 정상을 가린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5명이 Kim… "한국 컬링팀 모두 자매인가요?"

외신 기자들 오해 해프닝…실제 자매는 2명

'한국여자 컬링팀은 자매팀인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 중인 한국여자컬링대표팀은 외신들로부터 이름으로 인한 오해를 받았다. 여자컬링대표팀은 김선영(25), 김경애(24), 김영미(27), 김은정(27), 김초희(22)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막내 김초희를 제외한 4명은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함께 자란 절친한 사이다. 의성여중고 선후배 사이와 동기동창으로 구성됐다.

실제 자매는 김영미, 김경애 뿐이다. 김은정은 김영미의 학교 친구다. 김선영은 김경애의 친구다. 김은정과 김영미가 고1 때 방과후 특기활동으로 컬링을 시작했다. 김경애는 언니에게 물건을 가져주려고 왔다가 팀에 합류했다. 이후 김경애의 친구 김선영이 컬링을 함께 할 사람을 모집할 때 자원했다.

인구 5만 명의 조금 넘는 조그만 시골에서 오랫동안 어울리며 자란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다보니 팀워크가 좋다. 공교롭게 5명 모두 성이 김씨다. 김민정 감독마저 김씨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외신 기자들은 여자컬링대표팀을 자매팀으로 인식하고 있다. 주장의 이름을 따는 것이 특징인 대한민국 컬링대표팀의 이름은 그래서 'TEAM KIM'이다.

미국의 스포츠전문채널 ESPN은 17일 '한국 여자컬링팀은 성이 모두 김(KIM)이다'라고 보도했다. 유니폼에 영문이름이 새겨진 여자컬링대표팀의 사진도 함께 실었다. 그 사진에는 E.KIM(김은정), Y.KIM(김영미), S.KIM(김선영), K.KIM(김경애), C.KIM(김초희)가 새겨져 있었다. 전부 같은 이름(KIM)이 새겨져 있으니 외신 기자들의 눈에는 자매로 오해하기 안성맞춤이다.

ESPN의 샘 보든 기자는 "김씨는 한국에서 가장 흔한 성이다. 한국의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트 선수 김연아도 성이 김이다"고 설명하면서도 "하지만, 이렇게 같은 성이 많지는 않다. 우리들은 혼란스럽다"면서 흥미로운 시선을 전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투혼의 서이라, 최선 다한 그가 왜 비난 받아야 하나

권혁신의 '빙상의 전설'
빙상 칼럼니스트
'빙상의 전설' 저자

●서이라에게 쏟아지는 악플 세례

지난 17일 벌어진 남자 쇼트트랙 1000m 결승전 결과를 두고 인터넷이 뜨겁다. 남자 쇼트트랙 1000m 결승에는 서이라, 임효준(대한민국)과 함께 사무엘 지라드(캐나다), 존 헨리 크루거(미국), 헝가리의 류 사오린 산도르(헝가리)가 출전했다.

3위로 출발한 임효준이 선두권인 지라드와 크루거를 추월하려다 실패하면서 경기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임효준을 앞선 서이라가 인코스로 몇 차례 추월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하면서 서이라를 제치고 나가려던 임효준도 제때 빠져나갈 타이밍을 잡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졌다. 한 바퀴 반을 앞두고 서이라가 다시금 추월을 시도하려는 상황에서 뒤에서 달리던 류 사오린 산도르가 인코스 추월을 시도하가다가 서이라를 걸고넘어지면서 임효준까지 함께 미끄러지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서이라와 임효준이 결승선을 향해 달렸지만 결과는 서이라와 임효준이 3, 4위. 금메달은 물론이고 동반 메달 획득까지 노리던 대한민국 대표팀과 국민들로선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 결과였다.

이 상황을 두고 인터넷과 SNS에서 뜨거운 논란이 벌어졌다. 임효준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서이라가 빨리 임효준에게 자리를 비켜주어야 했다는 의견이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더러는 황대헌까지 대한민국 선수 셋이서 준준결승을 치렀을 때 셋 중 제일 실력이 떨어지는 서이라가 양보해서 황대헌이 올라왔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심지어 같은 한체대 출신인 임효준과 서이라가 학연에 따른 짬짜미로 황대헌을 탈락시켰다는 소설도 있다.

서이라의 인스타그램에도 악플과 비아냥의 댓글이 서이라를 격려하는 댓글을 압도하며 수천 개가 달리고 있다. 오히려 서이라와 임효준을 걸고넘어진 산도르의 SNS에 격려의 댓글이 많은 상황이다.

●20년 전 나가노올림픽 여자 1000m 결승전

이번 17일 1500m 경기는 20년 전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벌어졌던 여자 1000m

쇼트트랙 서이라는 17일 남자 1000m에서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대표팀의 동반 메달 획득 실패와 여러 오해가 겹치면서 네티즌의 비난을 사고 있다. 그러나 서이라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평창 | 신화뉴시스

를 연상케 했다. 당시 결승전에 진출한 선수는 전이경, 원혜경(한국), 양양 A와 양양 S(중국)였다. 경기 초반 탐색전에 이어 중국의 양양 S가 선두로 나서고 원혜경이 2위, 양양 A가 3위, 전이경이 4위로 달렸다. 그런데 4바퀴를 남겨두고서 양양 A가 원혜경을 추월하여 2위로 올라서면서 긴장감이 고조된다. 쇼트트랙에서 같은 나라의 선수들이 레이스 중반 이후 1, 2위를 차지하고서 스피드를 올리기 시작하면 뒤의 선수들이 추월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한 선수가 인코스를 막고, 다른 한 선수가 아웃코스를 막으면 뚫고 들어가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까지 4위로 체력을 비축하고 있던 전이경이 나선다. 2바퀴를 앞두고 스퍼트를 내기 시작해 마지막 바퀴의 종이 울리는 사이 곡선 주로에서 중국의 양양 S를 인코스로 제치고 2위로 올라선 전이경은 마지막 바퀴에서 양양 A 선수와 동일 선상까지 올라선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인코스만을 노리고 있던 전이경은 발을 내밀며 결승선을 향한다.

당황한 중국의 양양 A 선수가 전이경의 팔을 잡고 늘어지면서 전이경은 미끄러지지만, 전이경의 스케이트 날이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고 자신의 승리를 직감한 그는 엉덩방아를 찧은 채로 두 손을 번쩍 들고 환호한다.

동계올림픽 역사상 가장 극적인 역전승 가운데 하나로 회자되는 명승부로 17일 남자 1000m 결승전과 절정까지는 유사한 내용이었지만 결말은 전혀 달랐다. 왜일까?

당시 1000m는 중장거리 경기로 초반 탐색전이 있었지만 요즘 1000m는 탐색전 없이 스타트 이후 짧은 시간 안에 승부가 결정나는 단거리 경기가 됐다. 한국 남자대표팀으로선 초반 기선제압에 실패하고, 이어 임효준의 추월 시도가 실패한 것이 첫 번째 패착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요인은 20년 전엔 경기를 뛰던 선수가 네 선수뿐이었지만 이번엔 헝가리의 산도르가 있었다는 것이다. 산도르는 월드컵 1000m 랭킹 1위를 차지할 정도의 뛰어난 실력을 가진 강자로 결승전에서 20년 전 전이경과 같은 대역전극을 노리던 이가 바로 그였다. 무리하게 인코스 추월을 시도하다가 서이라를 걸고넘어지지 않았다면 시상대 가장 윗자리에 서는 건 산도르였을지도 모른다. 물론 가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긴 하지만 말이다.

●서이라가 짬짜미나 밀어주기를 해야 했나

서이라에게 악플을 남기는 이들이 바라던 시나리오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준준결승에서 서이라 대신 황대헌이 올라오거나 결승전에서 임효준에게 앞길을 양보해서 임효준의 대역전승에 일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몇 십 년간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적폐로 지적받아온 짬짜미이자 에이스 밀어주기다. 무슨 사건만 터지면 파벌싸움, 파벌싸움 십 년 넘게 비판을 하면서도 정작 파벌싸움의 가장 나쁜 면을 답습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금메달을 따길 바라니 서이라 본인의 성적은 포기하라고 전체주의적인 억압을 가하는 것이다.

쇼트트랙은 국가대항전 이전에 개인 경기이다. 그 누구도 서이라에게 다른 이를 위해 희생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 그래서 코칭스태프도 선수들에게 별다른 작전을 지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일부 네티즌들은 코칭스태프가 작전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입장을 바꿔 본인에게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고 희생하라고 공권력이나 상부가 지시한다면 "네" 하고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될까?

쇼트트랙이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지도 벌써 26년. 사람이었으면 이미 성인이 되고도 남을 나이다. 하지만 아직도 판정 시비가 있고, 그에 따라 네티즌들의 설전과 사이버 테러도 여전하다. 오죽했으면 캐나다의 킴부탱이 경찰에 신고했을까? 판정 시비 근절과 규정 완비는 국제빙상연맹의 몫이지만 성숙한 관전 문화는 네티즌들의 몫이다. 보다 성숙된 자세가 필요하다.